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

- 자료 및 작가를 중심으로

고순희**

〈차례〉

1. 머리말
2. 자료 개관
3. 작가의 생애 및 창작 연대
4. 만주 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만주 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작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장에서는 대상 자료와 그 이본을 제시했다. 대상 작품은 <송교행>(2), <답사친가>(3), <감회가>(2), <별한가>(4), <단심곡>(1), <사친가>(1) 등 총 6편(괄호 안은 이본 수)이다.

3장에서는 각 작품의 작가를 규명하고 그 생애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송교행>의 작가는 安東權氏(1862-1938)로 51세 때인 1912년에 <송교행>을 창작했다. <답사친가>의 작가는 固城李氏(1894-1937)로 21세 때인 1914년에 <답사친가>를 창작했다. <감회가>와 <별한가>의 작가는 全義李氏(1855-1922)로 59세 때인 1913년에 <감회가>를, 61세 때인 1915년에 <별한가>를 창작했다. <단심곡>의 작가는 1893년 서울의 명문가에서 장녀로 태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392).

** 부경대학교

어나 18세에 영남의 명문가에 시집을 간 여성으로, 30세 무렵인 1922년 경에 <단심곡>을 창작했다. <사친가>의 작가는 1900년 장녀로 태어나 20세에 결혼하여 18년 간 결혼 생활을 한 여성으로, 37세 무렵인 1936년에 <사친가>를 창작했다.

4장에서는 작가의 생애와 가사 작품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작가들은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던 양반가 여성이었다. 그러나 가족이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굴곡지게 되었다. 작가들은 대부분 가사 창작의 전통적 중심지인 영남의 명문대가와 관련을 맺고 있어 가사 창작에 익숙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망명자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서정을 가사 장르를 선택해 표현한 것이다. “만주 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는 근대기 우리 역사의 중요 국면을 살아갔던 당대 여성의 삶과 표현을 담았다. 이들 가사는 근대기 역사의 증언과도 같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만주망명, 송교행, 답사친가, 감회가, 별한가, 단심곡, 사친가

1. 머리말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는 남편, 아들, 부모, 형제, 친구 등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신변탄식류 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리움의 서정과 아울러 여성의 처지에 대한 탄식의 서정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당대 여성의 존재론적 자아 인식과 현실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학 자료이다. 그런데 신변탄식류 규방가사는 대부분 관습적 글쓰기 안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그 표현과 내용이 언뜻 보아 천편 일률성을 띠게 되었고, 그리하여 연구자에게 그리 매력적인 유형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읽기’를 통해 이 작품들을 보

면 각각이 작가의 특수한 사연을 담은 개별적 문학세계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제 신변탄식류 가사 작품에 대해 작가의 처지, 그리워하는 대상, 그리워하게 된 사연 등을 밝혀내어 각 작품의 개별성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민족적 특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만주망명자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신변탄식류 가사 작품들을 따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혁신유림 문중에서는 만주 망명가사가 창작되었다.¹⁾ 이러한 만주망명가사도 만주망명 당시의 상황을 서술함과 동시에 고국에 두고 온 육친을 그리워하는 서정을 담고 있어 크게 보아 신변탄식류 가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가와 동반하여 만주로 망명해간 여성도 있지만, 고국에 홀로 남아 망명한 남편, 아들, 부친, 딸 등을 그리워하며 한탄의 나날을 살아가던 여성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 가운데는 고향집에서 만주망명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심정을 가사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들 가사를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로 는 <송교행><답사친가><感懷歌><별한가><단심곡><사친가> 등이 있다. 이들 가사는 대부분 규방가사 연구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가사가 지니고 있는 사연의 특수성에 주목하

1)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151~176쪽. ;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9~56쪽. ; 고순희, 「만주 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7~134쪽. ;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제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133~158쪽. ; 고순희,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담당층 혁신 유림을 중심으로」, 『고시가문학연구』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7~68쪽. ; 고순희, 「만주망명가사와 디아스포라」, 『한국시가연구』제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165~193쪽. ; 고순희, 「만주망명과 여성의 힘-가사문학 <원별가라><위모스><신식트령>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03~132쪽.

여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학 연구에서 작가의 생애는 작품세계의 이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그 동안은 여성작 규방가사의 연구에 있어서 작가의 구체적 생애에 대한 규명 노력이 타 장르 혹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 연구의 대상 작가에 대해서도 ‘안동군 하회 柳時俊(본관 豊山人)께 出嫁한 石洲 李相龍의 長孫女[답사친가]’²⁾나 ‘寒洲先生 子婦 星州李氏 夫人[감회가]’³⁾과 같이 남성과 관련한 사실을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이렇게 규방가사의 작가 규명이 소홀했던 데에는 여성의 삶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이 가정에 국한한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 남성의 정보가 작품의 이해에 더 중요했던 탓도 있었다. 그러나 작품의 작가인데도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의 부인이나 누구의 손녀 정도로만 언급하고 지나치는 것은 작품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여성 작가의 생애를 전면에서 드러내어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가는 독립운동가와 연관이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생애를 아주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단편적이더라도 구체적인 작가의 생애를 재구성하여 독립적인 작가의 생애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논문 지면의 한계 때문에 대상 자료를 제시하고 작가를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2장에서는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자료들이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 이동영,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 『가사문학논고』,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58쪽. 간단히 “작자 李氏夫人은 石洲 李相龍의 長孫女이다. 안동군 하회 柳時俊(본관 豊山人)께 出嫁했다”라고만 적고 있다.

3) 이휘 편저, 조춘호 주석, 『견문취류』, 이회, 2003, 92쪽.

살피고, 그 자료들의 이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장에서는 작가를 규명하고 그 생애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유명 독립운동가의 경우 그 생애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여성 작가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생애가 대부분 학문 및 독립운동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명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그 생애가 간단한 독립운동 활동에만 한정하여 기록된 경우가 많아 이들과 함께 살았던 여성 작가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족보, 독립운동가의 생애, 관련 문헌, 작품 내용 등 가능한 자료를 동원하여 여성 작가의 삶을 재구성한다. 4장에서는 밝혀진 작가의 생애와 가사 작품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자료 개관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은 크게 두 부류로 망명형과 생활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작가가 그리워하는 당사자의 만주행이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형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다. 만주로 건너간 당사자가 망명형인지 생활형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나 당사자가 건너간 타국이 만주가 아닌 다른 지역인 경우는 대상 자료에서 제외했다.

<단심곡>을 제외한 대상 작품들 모두는 작품의 내용 속에 그리워하는 당사자가 만주망명인임을 뚜렷이 드러낸다. <송교행>은 남편을 따라 서간도로 떠나는 그 딸을 보내면서 안타까와 하는 모정을 표현했다. 역대·집성본은 만주망명가사의 하나인 <위모스>와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성문화별 녀압김씨 영남이 덕성이요 / 우리사회 김문식은 장부녕옹 골격이라”라는 구절에서 사위가 내앞김씨 문중의 김문식이라고 했으므로 그 딸이 만주망명가사 <위모스>의 작가임이 분명하다. 독립운동을 위해 사위

와 딸이 동반 망명하자 그 어머니가 <송교행>을 짓고 그 딸은 후에 <위모스>를 지어 이 두 필사본이 같이 실려 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송교행>은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에 해당한다. <답사친가>는 독립운동가 이상룡의 맏손녀가 쓴 가사 작품으로 만주로 망명해간 할머니와 부친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와 반가올사 서간음신 반가올사 / 신기하고 황홀하다 우리왕모 하찰이야”로 시작하는 이 가사는 “말리 이역에” 계신 ‘王母’의 서간을 받고 그에 대한 답으로 쓴 가사이다.⁴⁾ 여기서 ‘王母’는 만주망명가사 <간운스>와 <조손별서>의 작가인 金宇洛이다. <감회가>는 “星州人 寒洲先生(諱 震相)의 子婦가 그의 夫君이 亡國의 한을 품고 畢子를 데리고 잠적(北間島)하자 그를 간절이 그리며 젊은 子婦의 애절한 심회 등을 그린 歌辭”⁵⁾로 만주에 있어 6년 동안이나 보지 못한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별한가>는 만주 봉천에 있는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가사는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본이 4개나 확인될 정도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가사이다. 그런데 이 가사의 작가가 <감회가>의 작가와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다.⁶⁾ 따라서 <별한가> 역시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에 해당한다. <사친가>는 부친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내용에 “장하신 우리야야 큰뜻은 품어시고 / 북으로 압록강을 훌훌니 건너시니”라고 했으므로 작가의 부친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자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단심곡>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서정을 담았다. 그런데 문면 상 남편이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한 것은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 향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4) 제목이 <답사친가>이므로 왕모가 보낸 서간은 서간체 가사인 <간운스>일 가능성이 있다.

5) 이휘 편저, 조춘호 주석, 앞의 책, 92쪽.

6)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한주종택 종부의 가사문학-〈감회가〉와 〈별한가〉」, 『고전문학연구』제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91~122쪽.

경술연 변복세상 썩여난 포부지화 / 치국평천 경운으로 신혼부부 만남정
을 / 헌신갓치 써쳐부고 부상의 이별회포 / 서리서리 서리담아 십삼도 고국
산천 / 도라보고 도라볼적 봄바람 잔물결의 / 낯서른 이역의서 고독시름 어
이홀가

위는 <단심곡>의 한 구절이다. 작가의 남편은 경술국치를 당하자 “치국평천 경운[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산천”을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작가와 이별하고 혼자 집을 떠나 낯선 “이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작가의 남편은 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을 떠난 망명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위의 구절을 포함하여 작품 내용의 어느 곳에서도 남편이 간 곳이 만주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구절 가운데 “부상⁷⁾의 이별회포”라는 구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扶桑’은 일본을 지칭하기도 하여 혹시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부상’은 남편이 향한 곳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별 회포’와 ‘서리서리 담아’와 어우러진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상’은 해와 달이 뜨는 곳을 의미하므로 해 뜨는 이른 아침에 이별하는 애틋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⁸⁾ 한편 작가는 남편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운산을 넘고넘고 하슈을 건너건너 님을츠즈 닉가가셔”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만약 남편이 있는 곳이 일본이었다면 바다를 건넌다는 표현이 당연하게 와야 한다. 하지만 작가는 육로와 강을 건넌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이 있는 곳이 일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술국치 직후 망명해 나간 독립운동

7) 扶桑은 동해 바다 가운데 있다는 큰 神木 혹은 해와 달이 뜨는 곳. 동방을 말한다. <해내십주지(海內十洲志)>에 “동해의 동쪽 푸른 바다 가운데 사방 1만리 되는 육지가 있는데, 그 위에는 태제궁(太帝宮)이 있고 숲의 나무는 모두 뽕나무와 비슷하며, 큰 것은 높이가 수천 길ियो 둘레가 이천 아람이나 되며, 나무마다 같은 뿌리에서 두 갈래의 동치가 자라 서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부상이라 하는데, 그 나무에 구천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열매가 있어서 신선들이 그 열매를 먹고서 온 몸에 금빛이 난다”고 하였다.

8) 만주망명가사 <위모스>에서도 만주에 발을 디딘기 전 마지막으로 고국산천을 바라보며 심회를 읊는 가운데 ‘부상의 이별회포’라는 구절을 쓰고 있다. “암녹강 만경창과 후탕후탕 흘러가고 / 십삼도 고국산천 도라보고 도라보니 / 부상의 이별회포 이지경에 어립쏘다”

가들이 대부분 만주 지역으로 건너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감안하면 작가의 남편을 만주망명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상으로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작품으로 <송교행><답사친가><感懷歌><별한가><단심곡><사친가> 등 총 6편이 확인된다. <송교행>은 내방가사자료본과 역대·집성본 두 이본이 확인된다.⁹⁾ <답사친가>는 규방가사본, 역대본, 집성본 등 세 이본이 확인된다.¹⁰⁾ <감회가>는 견문취류본, 이규석본 등 두 이본이 확인된다.¹¹⁾ <별한가>는 역대·집성본, 영남본, 가사문학관본 1, 가사문학관본 2 등 네 이본이 확인된다.¹²⁾ <단심곡>과 <사친가>는 각각 유일본이 확인된다.¹³⁾ 대상 자료의 유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내방가사자료-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제15집, 이화여대 1970), 379~380쪽.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제25권, 아세아문화사, 1998, 67~74쪽.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 『한국가사자료집성』제9권, 519~526쪽.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I-가사문학대계③』, 1979, 189~195쪽.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제23권, 여강출판사, 1992, 74~87쪽.

단국대울곡기념도서관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2권, 태학사, 1997, 142~154쪽.

11) 이휘 편저, 조춘호 주석, 앞의 책, 92~103쪽.

이규석본은 작가의 손자인 李葵錫 전 국민대총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12)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제39권, 아세아 문화사, 1998, 39~50쪽.

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3권, 태학사, 1997, 443~466쪽.

이정옥, 『영남내방가사』제2권, 국학자료원, 2003, 98~137쪽.

한국가사문학관 > 국가지식DB 한국가사문학 > 가사 > 미해제본 > 『별한가한별곡』 11~50쪽.

한국가사문학관 > 국가지식DB 한국가사문학 > 가사 > 미해제본 > <별한가>

13) 권영철 편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5, 463~468쪽.

권영철 편저, 앞의 책, 578~583쪽.

대표 작품명	이본 수	이본 소재	작품명	비고
<송교행>	2	「내방가사자료 -영주·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DB ¹⁴⁾	송교행	활자본
		『역대가사문학전집』제25권	송교행	필사본
		『한국가사자료집성』제9권	송교행	위와 동일본
<답사친가>	3	『규방가사 I-가사문학대계③』DB	답사친가	활자본
		『역대가사문학전집』제23권	답사친가	필사본
		『한국가사자료집성』제2권	답사친가	필사본
<感懷歌>	2	『견문취류』	感懷歌	활자본
		이규석 소장	술회가	수고본
		이규석 소장	述懷歌	소책자본
<별한가>	4	『역대가사문학전집』제39권	별한가	필사본
		『한국가사자료집성』제3권	별한가	위와 동일본
		『영남내방가사』제2권	별한가	필사본
		한국가사문학관 미해제본	별한가	필사본
		한국가사문학관 미해제본	별한가	필사본
<단심곡>	1	『규방가사-신변탄식류』DB	단심곡	활자본
<사친가>	1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사친가	활자본

위의 표에서 이본 및 이본 소재의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동일한 필사본이 두 곳에 동시에 실려 있는 경우로, <송교행>과 <별한가>가 『역대가사문학전집』과 『한국가사자료집성』에 동시에 실려 있어서 그 이본명을 역대·집성본이라 명명했다. 둘째는 동일

14) DB란 임기중이 DB로 구축해 놓은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KRPIA <http://www.krpia.co.kr> 소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필사본을 순한글표기와 국한문표기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이규석 소장의 <술회가>와 <述懷歌>가 그것이다. 두 이본은 작가의 손자인 이규석 전 국민대총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의 필사본을 이상보교수가 순한글로 원고지에 옮겨 적은 수고본과 그것을 나중에 한문으로 해제한 해제본이다. 확인된 이본 상황만 보면 가장 왕성하게 유통되었던 가사는 <별한가>로 드러나지만, 다른 가사 작품의 경우 제목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 유통의 왕성함 정도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외에 권영철이 언급한 <타국감별곡>이 있다. 권영철은 이 가사에 대해 “만리타국에 간 낭군을 사모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안동 서후의 이씨부인이 남편 따라 북간도에 가서 지어 가지고 돌아왔다”고도 했다. 소개한 가사 원문의 일부분만 보면 중국의 서천서역으로 멀리 가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¹⁵⁾ 작품 전체가 고국에 있는 작가가 중국에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에 해당한다. 반면 작가가 중국 내 어느 곳에 있으면서(서간도) 남편이 서천서역 지역으로 임무를 띠고 멀리 가서 오지 않자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서정을 담았거나, 혹은 만주망명생활까지를 담고 있다면 만주망명가사에 속한다. 이와 같이 <타국감별곡>은 가사의 일부분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감별곡(망명가)>이라는 제목을 지닌 가사가 있는데¹⁶⁾, 제목으로 보아 <타국감별곡>의 이

15)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13쪽. 소개한 가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리별중에 서른거슨 싱리별이 제일이라 / 천사만사 록수장류 화촉아리 미진언약 / 백연이 다진토록 이별하지 말자더니 / 모지다 천지운슈 우리인연 저주하여 / 금란갓 혼 나의님을 서천서역 수만리에 / 연운만리 리별하고 님위하여 매친병이 / 골슈에 깎히백여 백약이 무효하니 / 삼신산 불사약도 아마도 허사로다 / 립주랄 고쳐입고 무명산 올라가니 / 원광속명 옛터랄 눈압히 내려보니 / 적벽에 밋는비난 횡하는곳 어딤대뇨 / 만리장경 동쪽편에 가련하다 외기력이 / 운소에 놓히퍼셔 용용한 긴소리로 / 짝을불러 슬피우니 / 아방궁 옛성터에 흥망성쇠 저역연기 / 천산남로 곤륜산에 황혼이 도라든다 / 지리한 타국사리 언제나 끈치려나 / 아름답다 잔나비아 너에게 부탁하자 / 님께가난 소식한장 하로바빠 전희주면 / 결쵸보은 하리로다”

16) 이동영, 「규방가사 전이에 대하여」, 『가사문학논고』,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02쪽.

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사문학에서 동일 제목의 서로 다른 내용의 작품이 많은 예로 미루어보아 단정할 수는 없다.¹⁷⁾

작품 전문이 전하고 있는 가사 가운데 <낭군님전상서>¹⁸⁾는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가운데 “일엽광음 뜻지 업서 구국에 부쳤도다”라는 구절이 있어, 남편이 독립운동을 위해 멀리 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국”이라는 용어조차 보이지 않아 남편이 간 곳이 타국인지, 그 성격이 만주인지가 드러나지 않아 이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밀양당원안동손씨칠산연홍탄이라>¹⁹⁾는 여성들이 하루의 놀이를 즐기는 내용인데 만주로 떠나는 이를 위해 이별의 서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 만주로 떠나는 이가 망명형인지, 생계형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후반기로 갈수록 생계형이 늘어 갔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망명형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3. 작가의 생애 및 창작 연대

3.1 <송교행> : 安東權氏(1862-1938)

<송교행>의 작가는 만주망명가사 <위모스>를 쓴 李鎬性(1891-1968)의 친정어머니이다. 『義城金氏大同譜』에 의하면 李鎬性은 “李中寓”의 딸이자 “退溪의 후손”으로 나온다.²⁰⁾ 그런데 이호성의 후손에 의하면 이호성은 내앞마을에서 ‘원촌할매’로 불렸다고 한다. 이호성은 ‘원촌마을’에서 살다가 내앞마을로 시집을 온 것이고, 따라서 그의 친정어머니 <송교행>

17) 혹시 이 자료가 도산면 遠村, 宜村, 剡村을 조사한 자료이고 시집와서 읽은 작품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원촌 마을 사람이 지은 <송교행>의 이본이거나 작가가 따로 지은 작품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18) 영천시, 『규방가사집』, 1988, 48-49쪽.

19) 한국가사문학관 미해제본 자료.

20) “配眞城李氏父中寓退溪后” 『義城金氏大同譜』, 의성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2,

의 작가는 원촌마을에서 시집살이를 살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은 퇴계 이황의 후손인 진성이씨 원촌과가 모여 사는 집성촌 마을인데, 우리에게서 李陸史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촌마을에서 살았던 작가의 생애를 재구성해 보았다.

<송교행>의 작가는 安東權氏(1862-1938)²¹⁾이다. 작가는 1862년 안동시 임하면²²⁾에서 權祚永(1827-1896)과 義城金氏(1823-1892) 사이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²³⁾ 작가가 태어났을 때 부친의 나이가 36세였으므로 늦게 본 자식이었다. 그런데다가 작가는 뒤로도 동생을 보지 못해 외동딸로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났다. 작가의 친정은 노비가 있는 양반가였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 쌀이 없어 보리를 빵아서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넉넉지는 못했다.²⁴⁾ 아들이 없었던 친정은 후에 한말의 학자 權秉燮(1854~1939)을 系子로 들여 후사를 이었다.

21) “中寓系后生父晚信通德郎 字義謙 生哲宗辛酉七月二十八日 卒庚辰八月十日 墓滿洲安東縣北盤道嶺青梅屯壬坐 配恭人安東權氏 父祚永 生哲宗壬戌九月初九日 卒戊寅十月二十六日 墓丹砂龜泳洞先塋下子坐” 『진성이씨원촌과세보』, 진성이씨원촌과보간행위원회, 1982, 112쪽.

22) 『臨湖講堂營建時日記』는 대략 1914년 11월27일부터 1916년 3월 초나흘까지 臨湖書堂(안동시 임하면 임하 1동 소재)을 건립할 때 그 발원에서부터 공정의 모든 경과를 기록한 일종의 건립일지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三月十五日 又出各村董役 丁有司 川前金滸壽金奎洛 臨河權祚永金鎮璜 多川金炳壽金稷壽”라 하여 부친 권조영이 임하에 살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23) “祚永 字幼錫生丁亥卒丙申三月十六日墓臨河道藏谷先兆下癸向 ○配聞韶金氏父耳壽雲川涌后忌十一月十七日墓舟邱村後山申向” 『안동권씨부정공과보』1권, 안동권씨부정공과보소, 1994, 270~271쪽.

24) “公의 모친 義城金氏(1823~1892)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시아버지의 손님이 오셨을 때 쌀이 없어 보리를 빵아서 식사를 대접하였으나, 손님들은 그것이 보리임을 알지 못했다. 또한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갔을 때는 정안수를 떠놓고 빌었다. 부유하게 자랐으나 시집와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에게도 정성을 다했으며 이웃 아이들을 사랑하였다. 집안에 노비가 곡식을 몰래 숨겨 놓았을 때는 책망하지 않고 술값이 있냐고 하여 노비를 감복시키기도 하였다.” 『石塢集』권9 <先妣孺人義城金氏遺事> 『석오집』은 작가가 무남독녀라 系子로 들어온 권병섭의 시문집이다. 여기에 의하면 작가의 친정집이 양반가로서 노비가 있었지만 가난한 살림을 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무남독녀로 자라난 작가는 원촌마을 이황의 후손인 李中寓(1861-1940)에게 시집을 갔다. 원촌마을의 이중우는 李陸史의 祖父와 사촌 간이다. 시집을 가자 효성이 깊었던 남편은 “우리 두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거나 가계가 균색해질 때, 만약 추호라도 어른들 및 동기간과 서로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이는 곧 나를 낳아준 부모를 욕보이는 것이니 이 말을 십분 명심하여 내 뜻을 저버리지 마시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작가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작가는 어른을 받들고 제사를 모시며 예의를 지킴에 성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²⁵⁾ 시집 간지 얼마만인 1884년에 장남 李勳鎬(1884-1937)를, 1891년에 <위모스>의 작가인 첫째딸 李鎬性(1891-1968)을, 그리고 1895년에 막내아들 李烈鎬(1895-1977)²⁶⁾를 낳아 소생으로는 2남 1녀를 두게 되었다.

이렇게 작가는 시집간 원촌마을에서 매서운 시집살이를 살아야했지만 당대 여성의 일반적인 삶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러한 순탄한 삶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산산히 깨져 버리고 말았다. 남편이 族叔 李晚燾와 族兄 李中彦이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古基를 지킬 뜻이 없다고 하면서 고향을 떠나 세상을 피해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에 따라 작가는 가족 모두와 함께 燕谷을 거쳐 春陽의 鶴山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리고 이즈음 1912년 봄에 시집간 첫째딸이 사위와 함께 서간도로 망명해갔다. 그러다가 아래 사람들이 벽지 생활을 감내하지 못한데다가 장남의 체증이 심해져 부득이 宜陽으로 옮겨 집을 빌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생계가 점점 막막해지고 아들의 병에 쓸 약

25) “媻永嘉權氏祚永之女以儒門古家無男一女賢而有婦德府君約曰吾二人處地有異家計且窘若有絲毫未妥意於長上同氣則便是汚辱吾所生父母也此言須十分明念勿孤吾志也自是奉生祭先之節務盡誠力克遵禮儀人無間言閨門之內常藹如也” 『遠臺景慕世蹟錄』人 권, 이원오 편저, 1997, 324쪽.

26) “烈鎬 字敬哉 生高宗乙未三月十三日 卒丙辰十一月十八日 墓大邱八公山鳳舞洞良坐建國褒賞” 『진성이씨원촌파세보』, 앞의 책, 113쪽. 독립운동가 약력에는 “1893.3.14-1977.1.7”로 기재되어 있으나 1895년 생이라는 족보의 기록을 따랐다.

을 구하지 못해 다시 大邱 鳳山町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년이 지나자 남편은 도회지의 혼잡함을 견디지 못해 병든 아들을 이끌고 다시 의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작가는 이렇게 1910년 이후 고향집을 떠나 28년을 객지에서 전전하다가 1938년에 의양에서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²⁷⁾

작가가 남편 및 맏아들과 고향을 떠나 세상과 등지고 사는 동안 막내 아들 李烈鎬는 3·1 운동 이후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열호는 1919년 3월 17일에 예안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해 시위를 주도했다. 1920년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체포되어 40여일 간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나 멈추지 않고 모집활동을 계속해 1921년에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1922년 6월 징역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후에는 新幹會 예안지회의 조직에 힘을 쏟았다. 1942년부터는 水雲敎의 간부로서 조국독립과 포교를 위해 일하다가 1944년 일경에 피체되어 5개월간 구금당했다. 이후 독립운동 공훈이 인정되어 1968년에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²⁸⁾ 작가가 사망한 이

27) “庚戌宗社既屋見響山族叔晚燾東隱族兄中彥絕食殉身 府君慨然曰世亂而不知變乃就禍之本無意典守古基 乃挈寓於燕谷益感爻象大非若海迷津而年已聽子故復幾年棲屑於龍溪得一庄遠寓於春陽之鶴山益自韜晦寄傲於園林澗壑而每以崦景搬移遠隔幃幔爲寤寐之懷因在下者不耐深僻且因長男氣滯之崇根帶漸痼不得已借居宜陽生計漸竿病者無責效之路便宜藥復南移大邱府鳳山町一年光陰倏忽放熱노焦憂之中携病子乃理歸裝更尋宜陽未幾遭逆理之慘定力所在太上遺懷未暮而夫人又違世” 『遠臺景慕世蹟錄』人 권, 앞의 책, 325쪽.

28)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동지를 규합하고 大韓青年誌·경고문·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3월 17일 禮安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배포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 “3·1운동 이후 원촌 청년들의 활동은 다시 이어졌다. 그 선두를 치고 나선 사람은 이열호였다. 1920년에는 동지인 鄭寅玉으로부터 군정서 도장이 찍힌 군자금 영수증 용지를 받아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그러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영주경찰서에서 40일 넘도록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풀려났다. 하지만 그의 뜻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듬해인 1921년 그는 金在天·宣永基·金在允·宋鍾斌 등과 함께 다시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그해 11월 25일 전북 益山郡에 살던 金溶善으로부터 군자금 180원을 모금한 것을 비롯하여 12월 25일까지 곳곳에서 군자금을 모았다. 그러다가 또다시 일경에 붙들리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이열호는 1922년 6월 21일 경성 북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한 뒤 이열호는 다시 사회

후 남편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울분의 심사를 더욱더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78세의 쇠약한 노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건너가 장손자의 工務所에 의탁해 살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에 만주 안동시에서 8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²⁹⁾

<송교행>의 창작시기는 그 딸이 22살의 나이로 남편과 함께 서간도로 떠난 시기인 1912년 봄으로, 당시 작가의 나이는 51세였다.

3.2 <답사친가> : 固城李氏(1894-1937)

<답사친가>의 작가는 固城李氏(1894-1937)이다.³⁰⁾ 독립운동가 石洲李相龍(1858-1932)의 맏손녀이자 독립운동가 李濬衡(1875-1942)의 장녀이며, 하회마을 柳時俊(1895-1947)의 아내이다. 만주망명가사 <간운스>와 <조손별서>의 작가 金宇洛(1854-1933)의 맏손녀이기도 하다.

『東邱遺稿』에 의하면 작가는 1894년³¹⁾에 부친 李濬衡(1875-1942)과

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는 新幹會 안동지회에 참가하고 禮安분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다가 일제말기에 들어 민족종교를 신봉하면서 조국독립을 기원하다가 또다시 붙들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1942년부터 충남 대덕군 錦屏山에서 水雲敎의 간부가 되어 조국독립과 포교를 위해 기도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김희곤, 「이육사와 원촌마을 독립운동가들」, 『안동 원촌마을 - 선비들의 이상향』,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문서원, 2011, 197쪽, 198~199쪽.

29) “夫人又違世年將大耋窮兼鰥夙夜之思願歸故山長臥先龕之側若無其路環景撞着更無 구刻遲留之道卽隋諸孫輩携母子靈帛托汽輪馳渡鴨綠依長孫工務所 --- 庚辰八月十一日老終于南滿洲安東市之第廼以十九日某甲葬于市北元寶山麓青梅里後盤道嶺壬坐之原” 『遠臺景慕世蹟錄』 人권, 앞의 책, 325~326쪽.

30) 집성본 <답사친가>의 제목 바로 밑에는 “著作者 安東河回 柳○佑 所有者 安東河回 柳時郁”라는 기록이 있다. 안동 하회의 유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어서인지 <답사친가>의 작가를 “柳○佑”로 잘못 적고 있다.

31) “1894년(십구세) ○부공 석주선생을 도와 병학을 연구하는 등 이때부터 부공의 제반사업 추진에 깊이 참여하다. ○장녀 출생” 『東邱遺稿』 <東邱李濬衡先生年譜>,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1996, 518~519쪽. 『東邱遺稿』는 작가의 부친인 이준형의 문집이다.

모친 眞城李氏 李中淑의 1남 3녀³²⁾ 중 맏딸로 태어났다. 70여칸이나 되는 그야말로 고대광실의 임청각에서 태어난 작가는 유복하게 성장했다. 그런데 일제 강점이 노골화되면서 조부 및 부친이 의병투쟁과 근대학교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친정집은 일제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작가가 西厓 柳成龍의 후손인 柳時俊(1895-1947)과 결혼한 것은 경술국치 한 해 전인 1909년이였다. 작가가 결혼하기 직전에도 祖父가 안동경찰서에 일시 구금되었다가 1개월 만에 방면되기도 했다.³³⁾ <답사친가>의 내용에 “신행연 春正月에 난디업는 이별이야”라는 구절이 나온다. 결혼 후 1년 정도를 친정에서 보내다가 신행을 떠났고, 얼마 안가 친정 식구들의 만주행이 있었는데, 이때 ‘신행년 춘정월’은 신행이 있고 난 후 정월달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할머니가 귀는 좀 어두웠으나, 내가 편지 받고 우는 사연을 눈치채고는 “아이고 가엾어라. 우리도 강실이, 유실이 열여섯, 일곱 살 될 때 그렇게 먼 데 시집보내 떨쳐 두고 왔더니, 그 보복이 너한테로 돌아왔구나” 하시며 함께 우셨다. 세상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하고 광복대업을 성공하면 너희들은 오늘을 회상하며 좋은 때를 볼 것이라고도 하며 나를 달래셨다. 강실이는 석주어른의 외동딸로서 독립운동가 강남호의 부인이고, 유실이는 석주어른의 맏손녀로 하회 유씨가문에 출가했다.³⁴⁾

32) 1남 1녀가 더 있었으나 만주에서 어렸을 때 횡배와 홍역으로 사망했다.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111~112쪽.

33) “1909년(34세) ○ 부공이 설립한 대한협회 안동지회에 사무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안동군내의 道東書塾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청년들에게 신교육을 지도하다. ※ (동년 부이상룡선생은 안동경찰서에 일시 구금되었으나 군민들의 연일 항의로 1개월만에 방면되다) ○장녀 류시준에게 출가하다” 『東邱遺稿』<東邱李濬衡先生年譜>, 앞의 책, 519쪽.

34)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앞의 책, 101쪽.

허은 여사는 1907년 생으로 항일운동으로 유명한 許氏 집안에서 출생했다. 8살 되던 해인 1915년에 허씨 일가 전체가 서간도로 망명하여 만주로 와서 성장했다. 16살 되던 1922년에 역시 집안 전체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상룡가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이다. 시집 간 다음해인 1923년에 2천 800리 떨어진 만주 영안현에 살고 있던 친정 어머니의 편지를 받는데, 친정 어머니가 노령(러시아 땅)으로 이사간다는 내용이어서 더욱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위는 임청각의 종부인 허은 여사가 만주에서 이상룡의 맏손자인 李炳華(1906-1952)에게 시집갔을 때를 기억하는 부분이다. 허은 여사는 작가에게는 올케가 되며, 위에서 말하는 ‘할머니’는 작가의 할머니이다. 허은 여사가 시집을 간 다음해에 같은 만주이지만 2800리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를 보고 우는 것을 본 할머니가 예전에 딸과 손녀를 시집 보낸 사실을 떠올리며 손주며느리를 위로하는 장면이다. 위에서 “강실이”는 이상룡의 1남 1녀 중 외딸이자 작가의 고모가 되며, “유실이”가 바로 작가이다. 유씨 가문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친정에서는 작가를 柳室이로 부른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는 시집갈 때의 서운함이 두고두고 생각날 정도로 할머니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성장하다 결혼한 것이다.

작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술국치를 당하자 친정집은 1911년 정월에 만주로 망명해갔다. 그리하여 작가는 조부모, 부모, 어린 남형제 등 친정 식구들 모두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8일 아침 먹은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柳室이 정에 약하여 눈물을 흘린다. 동전 여섯 께미를 주며 달래었다.³⁵⁾

위는 이상룡이 망명과정을 기록한 『西徙錄』의 1월 8일 자 기록이다. 이상룡은 일경의 감시 때문에 가족들과는 신의주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홀로 출발했다. 1911년 1월 5일에 집을 출발하여 7일에 사돈집 하회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야 했는데, 정에 약한 작가가 눈물을 흘리자 이상룡이 달래던 것을 간단히 적은 것이다. 작가는 그러지 않아도 새댁이었기 때문에 친정과의 첫 번째 이별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친정 식구 모두가 만주로 망명하여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맏손녀라고 애지중지하며 아껴주던 조부를 이별하며 작가는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작가는 친정집의 항일정신을 누구보

35) 안동독립운동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7쪽.

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조부가 독립이 있기 전에는 환국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작가는 조부가 사실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 친정 식구와 다시는 재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하여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남겨진다는 생각 등이 한꺼번에 밀려와 떠나는 조부를 앞에 두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작가는 맘머느리로서 시집살이를 살았다. 시집 간 해에 시어머니가 막내 시동생을 낳았으므로³⁶⁾ 어린 시동생을 돌보는 일도 거들어야 했을 것이다. 시집살이 와중에도 만주에 있는 친정 식구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리움의 나날을 지냈다. 그러므로 부친 이준형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 고향에 들어 왔을 때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두 여동생과 남동생의 결혼식이 만주에서 치러졌으니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심정도 남달랐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작가는 유시준과의 사이에서 네 아들을 낳았다. 1912년과 1915년에 두 아들을 두고, 1927년에 셋째아들을 둔 후 11년 만인 1937년에 넷째 아들을 낳았다.

친정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반면 시댁은 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남편은 1920년 2월 경 柳時彦·柳性佑 등과 함께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그는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요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유시언·유성우와 함께 1920년 2월 문경군 산북면 서중리의 張守學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로 보냈다. 이 사실이 일본경찰에게 발각되어 유성우는 옥사하였으며, 유시언은 1921년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언도 받았으나 탈출하여 만주로 떠났다.³⁷⁾ 다행히도 남편은 체포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조부가 1932년 만주에서 사망하자 조모와 부친 등 친정 식구가 조부의 시신과 함께 고향 임청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친정집은 일경의 감시 속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36) “子時重 一九〇九年己酉生甲寅五月十九日卒” 『豊山柳氏世譜』卷之三, 237쪽.

37) 김희곤,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영남사, 2001, 195면.

계속했다. 그러던 중 1933년에는 작가를 애지중지하던 할머니마저 사망하고 말았다.

字耕山一八九五乙未生丁亥十二月二十九日卒 配鐵城李氏父濬衡臨清閣后
甲子生丁卯三月二十二日卒四子 墓玉溜洞入口合窆³⁸⁾

위의 기록에는 작가가 1864년에 태어나 1927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록의 생몰년 간지에 誤記가 있었던 듯하다. 작가 부친의 연표에 작가의 탄생은 1894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甲子(1864년)生”은 “甲午(1894년)生”의 오기가 분명하다. 그리고 “丁卯(1927년)--卒”도 “丁丑(1937년)--卒”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작가가 “四子”를 두었다고 했는데, 넷째 아들의 출생년도가 1937년이고, 남편 류시준이 後配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데 작가는 1937년에 4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³⁹⁾한 것인데, 40이 넘은 나이에 넷째 아이를 출산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답사친가>가의 창작년대는 “금년갑인 춘이월은 우리왕모 갑일일식”라는 작품 내 구절로 보아 갑인년인 1914년 경으로 추정되며, 이 당시 작가의 나이는 21세였다.⁴⁰⁾

3.3 <감회가>와 <별한가> : 全義李氏(1855-1922)

<感懷歌>와 <별한가>의 작가는 동일 인물로 그 생애는 이미 논문을

38) 『豊山柳氏世譜』卷之三, 234-235쪽.

39) “萬佑字聖俊一八七三癸酉生丁丑十二月十日卒 配東萊鄭氏父源東一八七〇庚午生丙戌正月十四日卒三子一女 墓屏山合窆” 『豊山柳氏世譜』卷之三, 234~235쪽. 이 기록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작가가 사망한 지 몇 개월 후에, 시어머니는 1946년에 사망했다.

40) 작품의 창작 시기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작품내용이 있다. 작품 내용에 “遠別한지 얼마런고 얼푸시 六年光陰”은 작가가 1909년에 결혼하여 친정을 이별한 지가 6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고, “광음이 여류하여 다섯가을 되얏도다”는 외강숙 모를 이별한 지 다섯 가을이 지났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통해 밝혀졌으므로⁴¹⁾, 여기서는 밝혀진 작가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작가는 全義李氏(1855-1922)로 성리학자 寒洲 李震相의 며느리이자 독립운동가 韓溪 李承熙(1847.2.16-1916.2.27)의 아내이며, 역시 독립운동가 李基元(1885-1982)과 李基仁((1894-1981)의 어머니이다.

작가는 달성군 하빈면에서 1855년 7월 28일에 부친 李彦會와 모친 星州李氏의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자기 뒤로 15년 후인 1870년에야 남동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외동딸이나 마찬가지로 성장했다. 작가는 19세 때인 1873년에 재혼하는 이승희와 결혼함으로써 寒洲宗宅의 종부로서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만에 장녀를 출산했지만, 그 후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885년에야 첫아들 李基元(1885-1982)을 낳았다. 그때 남편의 나이는 39살이었으므로 작가 부부는 물론 시아버지 이진상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다시 10년만에 둘째 아들 李基仁(1894-1981)을 낳았는데, 그때 작가의 나이가 40세였다. 작가는 늦게 아들을 얻어서인지 그 아들들을 일찍 결혼시켰는데, 1899년에 맏며느리를 보았다. 1905년 10월 을사오조약이 체결되자 남편은 두 차례 상소를 올린 일로 구속되어 1906년 4월 8일까지 60세의 노구로 옥중생활을 하다 풀려났다. 그리고 이 해 10월에 막내아들의 나이가 불과 13세임에도 불구하고 4살 연상의 密陽安氏와 결혼시킴으로써 작가는 두 며느리의 봉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항일활동을 계속하던 남편이 1908년 62세의 나이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이듬해 만주 길림성 密山府로 들어갔다. 1910년에는 막내아들 李基仁마저 17세의 나이로 남편을 돕기 위해 밀산부 한흥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작가는 남편과 어린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리움의 나날을 이어 나갔다. 작가는 1915년 말 경 봉천에 있던 남편 및 막내 아들과 상봉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몇달 지나지 않은 1916년 2

41) 고순희, 「만주망명인을 둔 한주종택 종부의 가사문학-〈감회가〉와 〈별한가〉」, 앞 논문. 95~100쪽.

월에 남편은 7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급히 봉천으로 간 작가는 남편의 시신을 운구해와 고향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이후 두 아들 이기원과 이기인은 부친의 뜻을 이어 받아 국내에서 항일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는 가운데 작가는 1922년 5월 28일에 68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감회가>의 창작 시기는 작품 내용에 나오는 “오늘이 어느날고 癸丑上月二十四日 / 吾兒의 出生日 아니련가”라는 구절로 보아 1913년(계축년)이며, 이 당시 작가의 나이는 59세였다. <별한가>의 창작 시기는 <감회가>를 지은 지 2년이 지난 1915년 봄 경으로 추정되며,⁴²⁾ 이 당시 작가의 나이는 61세였다.

3.4 <단심곡>과 <사친가> :

<단심곡>과 <사친가>의 작가는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단심곡>에서 작가와 창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작가는 “화산” 아래 우거하던 大名家에서 성장하여, 18세에 영남의 大姓家에 시집을 갔다.⁴³⁾
- ② 남편은 경술국치를 당하자 신흠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남겨두고 홀로 망명해갔다.⁴⁴⁾
- ③ “임인년” 봄에 한양의 친정집을 방문했다. 작가의 부친은 학향도덕으

42) 1915년 봄 경으로 추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별후 팔구지의 빅슈 쇠안니”라는 구절에 의하면 이별 후 8,9년의 시간이 흘렀다. ② “봉천성을 지나그던 세세원정 가져다가”라는 구절에 의하면 남편이 봉천에 있을 때(1914년 5월부터 1916년 2월 사망하기까지)이다. ③ 봄 밤에 심사가 울적하여 가사를 지었다고 했다. ④ 작품 내용에 작가가 1915년 말 경 남편과 아들을 봉천에서 상봉한 사연이 전혀 없다.

43) “화산하 덕명가의 이너뎌 심세호야 / 조상님의 여천즈이 은스금스 사랑속에 / 양친부모 기딤함은 여산약히 흐렸서라 / 이구방언 조요시절 영남의 덕성츄즈 / 출가입승 흐여보니”

44) “경술연 변복세상 썩여난 포부지화 / 치국평천 경운으로 신흠부부 만난정을 / 헌신갓치 써쳐부고 / 부상의 이별회포 서리서리 서리담아 / 십삼도 고국산천 도라보고 도라볼적 / 봄바람 잔물결의 낫서른 이역의서”

로 이름이 높았지만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억울하게 사망했다. 그래서 친정 집에는 편모와 어린 동생들만이 있다.⁴⁵⁾

④ “서울작천 우리사장[沙場?”에서 친정집 여성들이 모여 놀았다.⁴⁶⁾

⑤ 남편을 기다린 세월이 십 삼 년이어서 작가의 나이가 삼십이 넘어섰다.⁴⁷⁾

작가는 서울 화산[북한산의 異名이다] 자락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영남의 명문가에 시집을 간 여성이다. 그런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서가 너무 빈약하여 구체적인 작가를 찾을 수 없었다. 친정 식구들이 모여 놀았다는 ‘서울작천’이 어느 곳인지도 알아내지 못했다. 북한산 자락의 명문대가로 는 주로 종로구에 있는 청운동의 안동김씨 가문, 계동의 풍양조씨 가문, 필운동의 경주이씨 가문 등이 있다. 혹시 부친도 독립운동가이지 않을까 하여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했으나 장녀가 1910년 경에 18세의 나이로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에다 1920년 전후로 사망한 조건과 부합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이 독립운동가이므로 영남 출신 독립운동가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였으나, 영남 지역 독립운동가가 너무 많아 독립운동가의 족보를 일일이 뒤져 서울 출신의 부인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기란 엄두가 나지 않는 작업이었다.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은 작가가 1893년 생으로 장녀라는 것이다. 그리고 ⑤의 사실과 이 당시 계산법이 주로 햇수로 산정되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단심곡>의 창작 시기는 1922년 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③에서 “임인년[1902년이나 1962년]”은 ‘임술년[1922년]’의 오기로 보는 것이

45) “가친의 학향도덕 세인이 추양터니 / 철리웁스 슬픈서름 구곡이 쓴어질듯 / 동서 부지 어린동심 언제나 장성하여 / 고목의 빗치날고 이계모다 회포로다 / 임인춘 하 일비러 차모숙전 조흔그늘 / 외조모 외숙주가 육십곱즈 지나시고 / 빅설임상 조흔풍 체 열츄중의 회소담낙 / 막상막하 그즈미가 일역서난 끼닷지못 / 어나세 흐츄흐니 / 종제너외 금슈즈딜 너쳐서 반권정스 / 쫓슈풀이 만발흐니 기리유익 즐거워라 / 한양 도 선명경치 쳐음이 아니오나”

46) “서울작천 우리사장 천제일시 모인좌석 / 선각이 강임한듯 여중군즈 우리고모”

47) “오날이나 소식올가 너일이나 사람올가 / 기다리난 이세월이 얼푸시 십삼성상”
“삼십이 넘어서니 자미업난 거울터히”

좋을 듯하다.

<사친가>에서 작가와 창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 ① 3·1 운동 때 부친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했다. 모친, 작가, 어린 남동생 등 가족은 부친의 망명 사실을 삼일 후에야 알게 되었다.⁴⁸⁾
- ② 작가의 친정집은 “관성”이며 “대달영”을 넘어 시덕으로 신행을 갔다.⁴⁹⁾
- ③ 부친의 망명 직후인 4월 초구일에 작가는 신행을 떠나야 했다.⁵⁰⁾
- ④ <사친가> 창작 당시 작가의 나이는 37세이다.⁵¹⁾
- ⑤ 부친이 망명한 지는 18년이 지났다.⁵²⁾

①에 의하면 작가의 부친은 3·1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경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급하게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리고 ②에 의하면 작가의 친정집은 “관성”이고, 시덕은 친정에서 ‘대달영’을 넘어 가마로 하루 길을 가는 곳이다. “관성”과 “대달영”이 어느 곳이지를 알 수 있다면 그곳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조사할 수 있을 것같은데, 현재 이곳이 어느 곳인지 규명하지 못했다.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관성해수욕장이 있어 혹시 경주 출신이면서 3·1 운동을 하다가 1919년에 만주로 망명하고, 1937년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독립운동가를 조사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

48) “기미모춘 당도하니 조선의 삼철리가 / 도탄에 우즈질째 갈곳일은 조선동포 / 누가 구원할고 열난한 실진청연 / 선비지도 부르지져 유아의 자모마남 / 대한의 운예갓치 구토를 차질적의 / 장하신 우리야야 큰뜻은 품어시고 / 북으로 압록강을 훌훌니 건너시니---(중략)---우미한 세낫가족 아모것도 몰낫스니 / 삼일이 지난후에 그제야 소식듯고 / 일가가 난리드라 두겨불문 우리남미 / 편친시하 되었스나”

49) “그러나 정한예절 대달영 다시넘겨 / 종일을 지난후의 침실의 도라오니 / 차좁다 너자신이 죽지안여 사랑구나 / 누으니 잠이오나 잠업스니 헛된싱각 / 안전익 여러잇난 옛날너집 관성이라”

50) “신행전 이너몸이 무지정을 신속하여 / 기미사월 초구월의 할일업시 썬나간다 / 날보너난 우리자친 어런듯 정신일고 / 단상이 모힌친척 사람마다 눈물이라”

51) “이십연 과거사를 역역히 회고하니 / 세상사 일장춘몽 꿈속갓흔 이세월이 / 속절업시 흘러간다 사십미만 이너몸이 / 삼십칠세 사는동안 할일이 무엇이나”

52) “꿈속갓치 살다보니 십팔년 긴세월이 / 순간갓치 지냈드라”

다.

한편 작가는 1919년 부친의 망명 당시 결혼을 했는데, ⑤에 의하면 그로부터 18년 세월이 흘렀다고 했으므로 <사친가>의 창작 시기는 1936년 경이 된다. 그리고 ④에서 창작 당시 나이가 37세이므로 작가는 1900년 생이 된다. 작가는 1900년 생으로 만팔로 태어나 성장하다가 20세의 나이로 결혼할 당시 부친이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친정집을 걱정하며 지내다가 1936년 경에 <사친가>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말미에 “계묘 이월 이십이일”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쏘卯는 1903년이나 1963년이므로 필사년대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 6편의 작가, 창작 연대, 창작 당시 나이, 망명자, 망명 사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작가	창작연대	나이	망명자	사연
<송교행>	安東權氏 (1862-1938)	1912년	51세	딸	1912년 봄 독립운동가 김대락 문중의 망명
<답사친가>	固城李氏 (1894-1937)	1914년	21세	조부모 부모 동생	1911년 정월 독립운동가 이상룡 문중의 망명
<感懷歌>	全義李氏 (1855-1922)	1913년	59세	남편 아들	1908(1910)년 독립운동가 이상희 문중의 망명
<별한가>		1915년	61세		
<단심곡>	○○○ (1893-?)	1922년	30세	남편	1910년 직후 독립운동가 남편의 망명
<사친가>	○○○ (1900-?)	1936년	37세	부친	1919년 직후 독립운동가 부친의 망명

작가들은 대부분 양반가에서 태어나 비교적 편안한 성장기를 보내다 영남의 명문가로 시집을 와 시집살이를 했던 양반가 여성이었다. 육친이 망명할 당시까지 이들의 생활은 양반가 여성으로서 비교적 순탄했다. <송교행>의 작가 안동권씨는 살림이 넉넉지는 못했으나 안동 임하면의 양반가에서 무남독녀로 출생하여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성장하다가 이황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원촌마을 양반가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 시집살이를 하며 2남 1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답사친가>의 작가 고성이씨는 70여 칸 임청각을 소유한 안동의 명문 양반가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성장기를 보내다 이제 막 하회마을 풍산유씨가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 시집살이를 살고 있었다. <감회가>와 <별한가>의 작가 전의이씨도 가난했지만 달성군의 양반가에서 거의 무남독녀로 성장하다가 명문대가인 이진상 가문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 2남 1녀를 낳고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단심곡>의 작가는 서울의 명문가 집안에서 성장하여 영남의 명문 집안에 이제 막 시집을 온 새댁이었다. <사친가>의 작가도 가사의 표현 내용이나 어휘 씩씩이 정도를 볼 때 역시 영남의 양반가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인 점은 이들이 모두 실제로 장녀이거나 외동딸이어서 장녀나 마찬가지로였다는 점과 대부분 맏며느리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의 양반가 맏며느리로서의 순탄한 삶은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굴곡지고 한 많은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송교행>의 작가 안동권씨는 나라를 잃은 데 대한 깊은 상처로 세상을 등지고자 한 남편의 뜻에 따라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떠도는 생활을 전전했다. 만주로 망명하는 시집 간 딸과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만 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막내아들의 독립운동과 그로 인한 감옥 생활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답사친가>의 작가 고성이씨는 혁신유림 문중의 항일 활동을 겪으며 성장하여 독립운동의 대의와 책임의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식구 모두가 만리타국으로 망명해감으로써 그야말로 생이별의 고통을 지닌 외톨이로 살아가야 했다. 비록 몸은 시집에 매어 있지만 마음만은 늘 타국에서 유랑하는 친정

식구에게 가 있었다. 경술국치 즈음에 결혼하여 1937년 죽을 때까지 친정과 시댁 식구의 안위를 걱정하며 산 한평생이었다. <감회가>와 <별한가>의 작가 전의이씨는 육순 즈음의 나이에 불행을 맞이했다. 이제 손녀들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야 하는 나이에 노구의 남편과 어린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리움의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 그러다 남편의 죽음을 수습하고 아들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지켜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일생을 마감했다. <단심곡>의 작가는 신혼 시절에 남편이 만주로 망명해감에 따라 13년이나 독수공방의 생과부로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부친의千里怨死로 어린 동생들과 살아가는 편모를 걱정하며 나날을 살아갔다. <사친가>의 작가는 3·1 운동 즈음 결혼과 동시에 부친이 도망가듯 망명함으로써 불행을 맞았다. 모친이 부친 없이 어린 동생들과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상황이었는에도 불구하고 신행길에 오를 수밖에 없어 친정집을 팽개쳐 두고 왔다는 자책감이 회한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늘상 부친과 친정 식구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십팔년 세월을 살아가야 했다.

이렇게 작가들은 3·1 운동 즈음 결혼한 <사친가>의 작가를 제외하고 모두 경술국치로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육친의 망명 이후에도 이들은 시댁인 고향집에서 양반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는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을 감내하거나, 남편이 부재한 독수공방의 생과부 처지로 전락하거나, 가장의 부재로 인한 친정의 경제적 몰락과 생활고를 걱정하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부친이 망명해간 경우 이들 작가가 장녀이기에 친정에 대한 지향과 걱정하는 마음이 더한 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작가들 모두는 일경에게 쫓겨 살얼음판을 디딘 듯 언제 죽을 지 모르는 망명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작가들은 겉으로는 양반가 여성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듯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감내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작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망명자를 그리워하는 서

정을 가사로 표현했다. 작가들은 모두 전통적 생활 방식을 영위했던 양반가 여성으로서 가사 창작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었던 영남의 가사 담당층이었다. 작가를 알 수 있는 작품의 작가나 망명자는 모두 영남의 유명한 명문대가와 관련한다. <송교행>에서 작가는 안동 원촌마을 진성이씨 문중의 맏며느리였으며, 망명하는 딸은 안동 내앞마을의 의성김씨 김대락 문중의 며느리였다. <답사친가>에서 작가는 안동 하회마을의 풍산유씨 문중의 며느리였으며, 망명자는 안동의 대명가인 고성이씨 이상룡 문중 전체였다. <감회가>와 <별한가>에서 작가와 망명자는 경북 성주의 대명가인 성산이씨 이승희 문중이었다. 김대락, 이상룡, 이승희 등은 명문대가의 중심인물이었으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문중은 물론 영남지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유림 지도자였다. 이들 명문대가는 전통적으로 가사 창작의 중심지였다. 이들과 관련한 가사 작품들은 대부분 1910년대에 창작된 반면 작가를 알 수 없는 가사 작품들은 비교적 창작 시기가 후대로 내려오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명문대가가 전통적으로 가사 창작이 활발하였으므로 그 소속 작가들은 전통의 연장선 상에서 망명이 일어난 즈음에 가사를 창작했던 반면 명문대가가 아닌 문중에 소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가들은 상대적으로 가사 창작의 전통이 약했던 듯 가사의 창작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여성 작가들은 부당한 역사의 희생자였고, 이들의 삶은 부당한 역사의 그림자였다.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는 근대기 우리 역사의 중요 국면을 살아가면서 그 충격을 이면에서 받아야 했던 여성의 삶과 표현을 담고 있다. 만주망명가사와 함께 근대기 역사를 정면으로 대응하여 당대인의 서정을 담은 증언과도 같은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자료 및 작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데 그쳤다. 신변탄식류 가사인 이들 가사의 작품세계는 서정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서는 그 서정세계의 특징만을 간단히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송교행><답사친가><感懷歌><별한가><단심곡><사친가> 등의 가사 작품에는 작가가 망명자들을 그리는 상처 받은 서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작가들은 “三千里 저江山은 타국압제 되어구나<답사친가>”와 같이 민족적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우리所天 忠臣大節 사경을 / 正히하고 義理를 重히알아<감회가>”와 같이 망명자들의 독립투쟁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비록 독립운동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역사현실에 대한 인식은 망명자나 다름이 없었다. <송교행>에는 “그곳소문 드리보고 싱이가 좃타하면 / 우리역시 같것시이 낙도가 아니되고 / 고국이 무스흐면”이라 하여 작가 가족도 만주로 갈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작가 부부가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궁벽지에 들어가 사는 삶을 선택했지만 작가가 죽자 그 남편이 만주로 이주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남편은 물론 작가도 망명에 대한 의향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답사친가>에서도 군자금 마련을 위해 고향집에 들른 부친을 만난 후 통곡하는 작가를 그 시아버지가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거기서 시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연로하지만 자신도 삼년 탈상이 끝나는 대로 만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⁵³⁾ 안동 지역에는 특히

53) “속절업시 물너안자 히음업시 통곡이야 / 전후불고 체면흐고 정신을 일어편이 / 우리존구 자이시로 허물을 용서흐사 / 눕고넙히 훈계흐되 우지말고 밥먹어라 / 온야 온야 나도간다 너야모리 연류흐되 / 부지자취 하련만은 선덕은혜 싱각흐니 / 일월정충 우리선조 문충공에 후손으로 / 세세상전 국녹지신 되엿다가 / 가통지원 이세상에 영웅지기 업〇스〇 / 보국안민 간장업고 보고듯난 〇〇마다 / 절치부심 하여셔라 죠쵸에 삼십육계 / 주의상칙 쏜을바다 삼연효도 탈상하고 / 가난이라 가난이라 피난길 노 가난이라”

독립운동가가 많은데, 경술국치 이후 혁신유림의 영향 아래 만주로 망명한 인원도 엄청나게 많았다. 선비의 고장답게 민족과 백성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지닌 선비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에서 당시 고국에 남은 영남 지역 유림 중에는 선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언젠가는 짊어져야 한다는 부채감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망명자를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도 그것이 민족의 현실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비극성이 필수적으로 깔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감마저 지니는 복잡한 서정성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는 작품 내용의 대부분이 망명자를 그리워하는 서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 현실과 관련한 복잡한 인식들이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신변탄식류 가사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서정과 함께 여성 처지에 대한 한탄의 서정이 덧붙여 나타난다. 그런데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민족 현실에 대한 서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서정성은 매우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만주망명인을 둔 고국인의 가사가 담고 있는 서정성에는 망명자를 그리는 개인적 층위, 여성으로서의 층위, 민족인으로서의 층위가 중층적으로 담겨 있으면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서정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문헌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제23권, 여강출판사, 1992, 74~87쪽.
_____, 『역대가사문학전집』제25권, 아세아문화사, 1998, 67~74쪽.
_____, 『역대가사문학전집』제39권, 아세아문화사, 1998, 39~50쪽.
-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2권, 태학사, 1997, 142~154쪽.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3권, 태학사, 1997, 443~466쪽.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편, 『한국가사자료집성』제9권, 태학사, 1997, 519~526쪽.
- 이정옥, 『영남내방가사』제2권, 국학자료원, 2003, 98~137쪽.
- 한국가사문학관 > 국가지식DB 한국가사문학 > 가사 > 미해제본 > 『별한가한별곡』, 11~50쪽.
- 한국가사문학관 > 국가지식DB 한국가사문학 > 가사 > 미해제본 > <별한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규방가사 I-가사문학대계③』, 1979, 189~195쪽.
-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제 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151~176쪽.
_____,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9~56쪽.
_____, 「만주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7~134쪽.
_____,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제

- 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133~158쪽.
- _____,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고시가문학연구』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7~68쪽.
- _____, 「만주망명가사와 디아스포라」, 『한국시가연구』제30집, 한국시가학회, 2011, 165~193쪽.
- _____, 「만주망명과 여성의 힘-가사문학 <원별가라><위모스><신식트령>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03~132쪽.
- _____, 「만주망명인을 둔 한주종택 종부의 가사문학-〈감회가〉와 〈별한가〉」, 『고전문학연구』제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91~122쪽.
- 권영철 편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 출판부, 1985, 463~468.
-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13쪽.
- 김희곤,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 영남사, 2001, 195쪽.
- 김희곤, 「이육사와 원촌마을 독립운동가들」, 『안동 원촌마을 - 선비들의 이상향』,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예문서원, 2011, 197~199쪽.
-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東邱李濬衡先生年譜>, 『東邱遺稿』, 1996, 518~519쪽.
- 안동권씨부정공파보소, 『안동권씨부정공파보』1권, 1994, 270~271쪽.
- 안동독립운동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7쪽.
- 영천시, 『규방가사집』, 1988, 48~49쪽.
- 이동영,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 『가사문학논고』,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58쪽.
- _____, 「규방가사 전이에 대하여」, 『가사문학논고』,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02쪽.
- 이원오 편저, 『遠臺景慕世蹟錄』 人권, 1997, 324~326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내방가사자료-영주 · 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연구원논총』제15집, 이화여대 1970, 379~380.
- 이휘 편저, 조춘호 주석, 『견문취류』, 이회, 2003, 92쪽.

진성이씨원촌파보 간행위원회, 『진성이씨원촌파세보』, 1982, 112~113.

『豊山柳氏世譜』 卷之三, 234~5, 237쪽.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101, 111~112쪽.

투고일 : 2011년 12월 17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The Lyric Literature of Korean Women
Longing for Their Families in Manchuria
-Focused on References and Authors

Ko, soon-hee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ferences of the lyric literature of Korean women longing for their families in Manchuria, as well as to identify the authors. Chapter 2 is to present references and different editions with reference to <Song-Gyo-Haeng> (2), <Dap-Sa-Chin-Ga> (3), <Gam-Hoe-Ga> (2), <Byeol-Han-Ga> (4), <Dan-Sim-Gok> (1) and <Sa-Chin-Ga> (1), 6 works in all (numbers in brackets refer to the numbers of different editions).

Chapter 3 is to identify the authors of those works and to reconstitute their lives. <Song-Gyo-Haeng> was written in 1912 by a woman (1862 – 1938) from the Gwons of Andong, and <Dap-Sa-Chin-Ga> was written in 1914 by a woman (1894 – 1937) from the Lees of Goseong. It was 1914, when she was 21, that she completed the work. <Gam-Hoe-Ga> and <Byeo-Han-Ga> were written by a woman (1855 – 1922) from the Lees of Jeonju. The former was completed in 1913 when she was 59, and the latter in 1915 when she was 61. <Dan-Sim-Gok> was written by a woman who was born as the eldest daughter in a noble family in Seoul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in 1893 and married into the purple in Yeongnam area (the sou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at the age of

18. The work was composed in 1922 when she was about 30. <Sa-Chin-Ga> was written by a woman who was born as the eldest daughter in 1900, married at the age of 20, and led a married life for 18 years. The work was composed in 1936 when she was about 37.

Chapter 4 is to comment on authors' lives and the relations amongst works. Most of authors were women of noble birth who had not gone through the hardship of life. As their families went over to Manchuria and joined th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they began to muddle through the bitters of life. Most of them were related to Yeongnam area, the center of lyric literature. Their longings for their families are expressed in their works. The lyric literature of women longing for their families in Manchuria speaks for women who lived in turbulent periods in Korea. Such work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narrate the modern history of Korea.

Key words : Exile-to-Manchuria, Song-Gyo-Haeng, Dap-Sa-Chin-Ga, Gam-Hoe-Ga, Byeol-Han-Ga, Dan-Sim-Gok, Sa-Chin-Ga